

+ 이장섭 · 방송과 기술 기자

**키자니아 서울 오픈!**

#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실물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



키자니아 서울([www.kidzania.co.kr](http://www.kidzania.co.kr), 서울시 송파구 잠실)은 일본 도쿄, 오사카, 두바이 등에 이어 2월 27일 한국에서 오픈했다. 한국에서는 MBC의 자회사인 MBC플레이비가 테마파크 맡아 운영한다.

키자니아는 만 3세부터 16세의 어린이들이 현실을 재현한 도시에서 아나운서, 승무원, 의사,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이다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크기의 3분의 2로 축소해 현실의 도시를 그대로 재현했으며, 도시 속에서 약 90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.



어린이들은 실제 해당 직업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찰관, 스튜어디스, 소방관, 요리사 등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 등을 배우며 실물 경제흐름을 익히고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.

또, 일을 한 뒤에는 키조(KidZo)라는 키자니아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지급 받아 자신이 직업체험을 통해 번 돈을 키자니아 내 은행에 저금하거나 상점에서 기념품을 살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경제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.



*kidzania*

### 키자니아 방송국

키자니아에는 방송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2층에는 라디오스튜디오, 3층에는 TV스튜디오가 자리했다. 직업체험을 목표로 하는 테마파크인 만큼 카메라, 콘솔, 조명, 마이크 등 장비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며, 방송체험 전 본인의 역할에 맞는 의상착용과 대본 준비 등 큐사인이 나면 곧바로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.



직업체험은 어린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라 불리는 직원들이 존재하는데, 전문트레이닝을 받은 직원들로 어린이들이 체험을 체계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 TV스튜디오의 체험과정을 보면, 다섯 명의 슈퍼바이저가 아이들에게 체험할 직업의 역할을 분담해주고, 아이들은 아나운서, 리포터, 연출, 영상·음향엔지니어까지 주어진 직무에 집중하며 사전준비를 다부지게 한다.



*kidzania*



체험과정은 실제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동일하며, 직업에 맞는 사건·사고 보도, 현장취재, 스포츠 중계 등 실감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. 어느덧,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고, 너무 몰입해 땀까지 흘린다. 키자니아의 직업경험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.

키자니아는 지난 1999년 멕시코시티에 1호 점이 오픈한 이래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. 키자니아 서울의 시설, 콘셉트,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[www.kidzania.co.kr](http://www.kidzania.c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